공동체 소식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성자의 몸과 피로 파스카 성사를 거행하며 축제를 지내게 하셨으니,
성령의 힘으로 저희가 이 큰 잔치에 참여하여,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감사드리게 하소서.**

▣ 6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녜스) 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가정

▣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습니다.

▣ ‘쎌 기도’ 오전 팀 모집

- 일시 : 6/12(수) 오전 11시 첫 모임
- 장소 : 회관

☞ 화요일 저녁 팀과 별도로 오전 팀을 모집합니다.

▣ 청주교구 사제 모임

- 일시 : 6/3(월) ~ 6/6(목)
- 장소 : 샌루이스 한인성당

☞ 화, 목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 미주체전을 위한 일일식당

- 일시 : 6/2(일) 오후 3시 30분부터
- 장소 : 선교교회

☞ 티켓은 15불씩입니다. 행사분과에서 판매합니다.

▣ 기타

- 6월부터 저녁미사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 앞당깁니다.
- 이번 주일(6/2), 사제관 및 회관 구입에 대한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다음 주일6/9(일)은 Holy Trinity ‘본당의 날’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163	211	178/164	199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병훈(보니파시오)
	안지영(가타리나)	정예찬(미카엘)
차주	이원준(요 한)	안광민(야고보)
	김준영(요 셉)	고평원(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수연(율리안나)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차주	박혜정(가타리나)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박옥희, 전현교
차주	Holy Trinity 본당의 날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드로)
차주	최은미(아 녜 스)	문석찬(요 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5/19	96명	340불	1,810불
05/26	70명	302불	1,230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3년6월 2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몸소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빵의 모습까지 취하시어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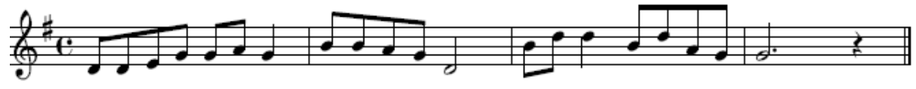
성화해설

성체성사를 세움
(프라 안젤리코, 1441-1442, 186x234cm, 성마르코 수도원, 플로렌스)
성체를 받아 모심은 신앙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창세기 14,18-20 <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

화 답 송 :



너 는 멜 기 세 덱 의 품 위 를 따 라 영 원 한 사 제 이 니 라

○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

○ 하느님께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홀을 뻗치시며
네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여라 하시리라. ◎

○ 거룩한 빛 속에 네가 나던 날 주권이 너에게 있었으니
샛별이 돋기 전에 이슬처럼 내 너를 낳았노라 하시리라. ◎

○ 하느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뉘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

제 2 독 서 : 코린토 1서 11,23-26 <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루카 9,11ㄴ-17
<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

셋째마

“사랑의 빵, 생명의 양식”

저는 몇 년 전, 수도권의 어느 보육원에서 안식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젖먹이부터 유치원생까지 1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있는데, 수녀님들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식과 옷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원장 수녀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주 아파요. 그게 안쓰러워서 더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다고 부족한 사랑이 다 채워지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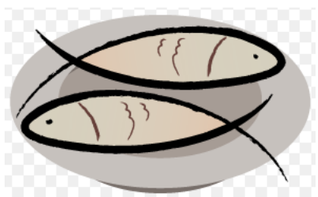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몸과 마음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사랑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주지만, 안 그러면 어림도 없다.’는 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루카 23,34 참조), 또한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목자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요한 21,15-19 참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을 주시고자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육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빵에, 영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당신 사랑을 담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통해 이런 뜻을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먹었던 빵은 “생명을 주는 빵”(요한 6,33)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후 만찬 중에 성체성사를 세우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현대에는 육신의 굶주림 못지않게 영혼의 굶주림도 큰 문제입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먹고 또 먹어서 비만에 걸리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허기를 달래려고 불량식품과 같은 유사영성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이 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과 삶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는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말을 믿겠습니까?

- 서울 대교구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마중물

“망덕을 거스르는 죄, 절망!”

유다는 주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주님을 팔아넘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커다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주님을 배반한 대가로 제관과 바리사이파인들이 그에게 주었던 은전을 성전 어귀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해마다 독일에서는 주님 수난 주일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시대를 재현한 막이 오르고, 유다의 고뇌가 수난극 속에서 다시금 그려지며 그 장면을 생생히 재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난극이 상연되고 있는 극장에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일곱 살의 한 여자 아이도 극장의 한가운데서 어머니와 함께 수난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유다가 끈을 매달고 자살하려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유다로 분장한 배우는 비장한 심정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로 가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입 맞추는 순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만 것이다! 내가 가야할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말을 듣고 있던 소녀가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며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성모님한테로 가지 않지요?”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37. 마리아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일은 예수님의 나자렛 생활에 대해서 복음이 침묵을 깬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들의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신비를 엿볼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49)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나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의 침묵 속에 묻혀 지내는 동안 줄곧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루카 2,51).

38. 예수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일반적으로 회개와 죄의 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셨음을 의미하며, 십자가에서 피흘리는 죽음의 세례를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루카 3,3). 수많은 죄인들, 세리와 군사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 창녀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셨다.” 세례자 요한은 망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마태 3,13-17)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느님 아들로서 드러난 예수님의 공현(Epiphaneia)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35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